

# “한국선 정체성 찾는다”

## 한국선학회 8개년 계획 수립 ‘신라선 재조명’ 첫 학술세미나

한국불교의 주류를 형성해 온 선의 역사를 앞으로 8년에 걸쳐 시대별로 재조명할 학술대회 첫 걸음을 떼어놓았다. 특정시기의 선에 대해 살펴보는 세미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장기적 계획 아래 시대별로 그 역사와 사상체계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한국선의 정체성을 찾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 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선학회는 '8년간에 걸쳐 한국선을 개괄·정리하는 한편 이후 한국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스님·학자 12명 기조발제

세미나 첫 해인 올해는 한국선의 출발인 신라시대의 선을 점검했다. 한국선학회가 지난 18~1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국선이란 무엇인가-신라시대’를 중심으로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다뤄질 한국선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국 대학의 선불교 관련 연구자와 스님 등 12명이 기조발제에 나섰다. 한국선학회 회장 현각 스님의 ‘신라선의 역사적 의의’에 이어 이종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선종 전래 이전의 신라의 선’을, 차차석 동국대 BK21 연구원이 ‘남종선의 초전자 도의선사의 사상과 그 연원 탐구’, 고영섭 동국대 강사의 ‘신라말 선문화의 형태와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방룡 영산원불교대 교수가 ‘신라말 제산문의 선사상’, 보조사 상연원 연구실장 인경 스님이 ‘신라말 교종교단과 선종의 제문제’, 조법환 서강대 박물관 학예연구원이 ‘신라말 유학자의 선종불교 인식’, 고려대 이덕진 강사가 ‘신라말 동리산문에 대한 연구’, 한기문 상주대 교수가 ‘신라말 선종사원의 형성구조’, 임병권 대전대 교수가 ‘선기록에 나타난 신라선사’,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가 ‘조당집

“도의국사 선전래 전후 독자적 모습 띄었다”

“신라말 선사상 설명 선교일치로 불가능”

신라 선사 기록 부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821년 도의국사에 의해 선이 전래된 전후의 역사, 특히 신라선의 성격에 모아졌다. 현각 스님은 “우리 나라는 중국과 달리 자발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선법을 수용하면서 독자적 모습을 띠어갔다”고 말했다. 이종철 교수는 원효의 달인 저작으로 보이는 <금강삼매경론>을 바탕으로 중국 선종이 통일신라 초기에 별다른 마찰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봤다. 이 교수는 “진선(眞禪)이란 표현을 통해 원효 당시에 이미 선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종을 받아들인 만한 사상적 풍토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8년간에 걸쳐 한국선을 집중 논의할 한국선학회의 학술세미나가 18~19일 동국대서 열렸다.

###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신라선의 성격을 규명하는 자리인 만큼 상식의 계층에 대한 학문적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인경 스님은 “신라말의 선사상은 결코 송대의 불립문자나 교의발전의 사상이 아니다. 또한 선교일치에 관한 어떤 논의도 발견되지 않아 신라말의 선사상을 선교일치로 설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방룡 교수도 “고려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산선문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보니 신라말 여러 산문의 사실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중앙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돼 온 지방의 향토문화를 집대성한 '인터넷 백과사전' 편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정신문화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DB개발

중앙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돼 온 지방의 향토문화를 집대성한 ‘인터넷 백과사전’ 편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최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전국 256개 지

역의 향토문화를 조사, 연구하여 인터넷을 통해 백과사전식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시범용으로 경북 문경시, 전남 장성군, 경기 성남시, 인천 강화군 등 4개 지역의 문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wksackr/hyengto)에 올려놓았다.

비문학, 정치, 경제,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전체 9개 분야로 나눠 삶의 터전(자연과 지리), 삶의 내력(역사, 삶의 자취(문화유산), 삶과 이야기(구비전승과 어문학),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삶의 주제(성씨와 인물), 삶의 틀(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

업, 삶의 내용(종교와 문화)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제어 검색, 멀티미디어 검색, 분류별 검색이 가능하며 동영상 자료와 유행 자료, 사진 자료도 얻을 수 있다.

권형진 기자

# 오류 수정·검색기능 강화 ‘고려대장경 2001’ 나왔다

## 통합대장경 시안도

지난해 12월 세계 첫 한글 디지털대장경인 ‘고려대장경 2000’을 선보인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조영환이 디지털대장경 ‘고려대장경 2001’을 내놨다. 고려대장경 2001은 지난해 발표된 디지털대장경의 오류를 수정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4일 오후 2시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시연회를 통해 발표했다.

시연회에서 새롭게 선보인 고려대장경 2001은 운영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속도를 개선했다는 점 외에도 검색결과와 저장·편집·인쇄 기능이 추가됐고, 등자자전과 불교용어사전 등이 들어갔다. 특히 검색의 경우 기존에 권 품·경권이나 경전의 이름으로 검색된 것과는 달리 주제 및 조건에 따른 상세 검색도 가능해졌다.

고려대장경연구소 허인섭 학술부장은 “고려대장경 2001은 설치하는 물론 운영의 안정성과 그 속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번 시

오종욱 기자



14일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 2001’ 시연회 모습.

# “중국 불교학연구 전망 밝다”

## 차차석 박사 논문 발표

동시대 중국불교학의 흐름과 전망을 진단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사진)는 <한국불교학> 28집에 발표한 논문 ‘개척 개방 후 당대 중국불교학의 흐름과 전망’에서 “중국 불교학계에서 재가 중심의 종교연구소와



승가 중심의 불학원 등이 설립돼 불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30~40대 소장 학자들이 불교학 논저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불교학의 전망은 밝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나 불학원에 발간한 <중국종교연감>(1996년, <불교연구>(1997년), <중국종교연구>(2000년) 등 최근 중국불교학의 동향을 담고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차 씨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불교의 회화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여러 민족 간의 화합의 방편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불교학이 발전하고 있

## 중 정부 지원 활발 학자·연구소 증가세

다는 것이다. 차 씨는 이 같은 변화의 계기로 중국정부가 80년대 이후 실시한 사찰 재산 보호 정책을 들었다. 이렇게 다져진 사원경제의 내실은 중국 불교계 자체적으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41회의 국제학술회의를 열 수 있었던 힘이 됐고, 현재 대만과 일본의 불교학계와 공동으로 정례 학술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중

국의 불교학계가 발전했다는 게 차 씨의 설명이다. 또한 차 씨는 대만과 홍콩 자본을 기반으로 수많은 학술서적과 불경, 논서 등이 간행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백화책으로 풀어 쓴 대중서적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a.com

## 문화재단 신 ‘한국의 세계유산’ 발간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및 불국사, 경주역사지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 문화재를 소개한 홍보 리플렛이 나왔다. 문화재단이 제작한 <한국의 세계유산>은 우리 나라에서 등록된 7건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사진과 설명,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가는 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금강산, 고구려벽화고분군 등 북한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세계유산 잠정목록(예비) 7건도 수록했다. ‘문화재단연감 2001’ 나와 문화재단은 200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 사업, 조사연구 현황 등 문화재 행정 전반에 걸친 자료를 종합한 <문화재단연감 2001>을 최근 펴냈다. 문화재단연감에는 문화재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유형문화재의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7대 문화유적 종합정보 등을 비롯해 남북교류 추진 등 새롭게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내용을 담았다.

ENGAGED BUDDHISM

# 참여불교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 한국의 종교권력

### 현주소는 어디에...

창간기획 좌담 교단자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기획연재  
• 국가권력과 종교  
• 세계의 공존체를 찾아서

논단  
• 재가종무원, 전문직인가 부목인가  
• 포교를 위한 인터넷 활용 방안

특별기고  
• 동국대 불교학부 원로-중진 교수들에게 드리는 고견  
• 불교회관 이렇게 짓자

교계초점  
• 얼얼없는 말, 괴문서 현상

순회재의 세상읽기  
• 남북화해시대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연간 구독료 2만5천원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資用」神示出刊

★래반인에게 면질 첫 말을, 초사(初測)란에 송곳같이 이 표시(指示)에 놓았습니다.  
★매당 국수(局數)에, 들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用件)으로 재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임문서기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주어 난해한 육십사를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일의 시간과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라는 단어가 안되는 각종 육십사법명을 묘아·정리·수색하였읍니다.

예를 들어, 임화간이나 사합이나 무수정이나 천의안이 사안이 들어서거나 정간한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바꿀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읍니다. 이때면,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천성이 학한지 선한지, • 나에게 이익을 사함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업인지 무익한인지
-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만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명쾌한 답변 알 수 있도록 提示해 놓아, 미리 그 결과를 신의힘으로 자신의 顏色와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으로서의 「카리스마」, 참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 악숙인이 되지, 만물지,
- 돈이 될지 안될지, 원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개가 될지 안될지, 원다면 언제 될지,
- 인태이가 날아인지, 어이인지, 수술해 날 어이인지,
- 손안 사할인지, 악성인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생기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책사가 풀릴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임종(임종)의 지름길은 무엇인지, • 궁극의 원인이
- 인간에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인지
- 신앙(신앙)의 신의지
- 본심을 찾을 수 있는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업인지, 해가 될 사업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절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기장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실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모지사·기후사

도서출판 북문 대표 김 나 러  
출판사등록번호 공보 제9-00076호  
사업자등록번호 도정 210-90-18989

책값이 많을 때에 비해 비싸지는 않으나 단천자용이므로, 이 책을 활용하여 희곡을 작성하고 학문정확성에 비하면 매우 싼 값에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실망스러우면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총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25,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時日)·時(時辰)별로 적시하여 놓았읍니다. 그래서 후, 의문되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藍太子 韓武生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북문 問 必 答